

무위의 느낌

| 용타스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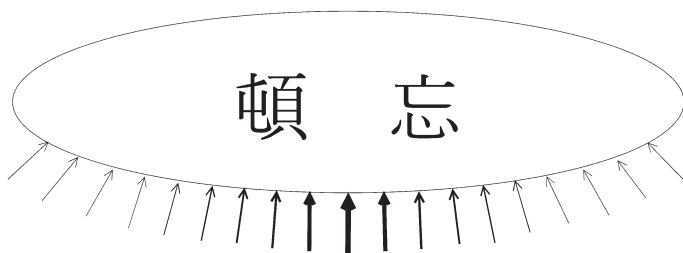
깨달음이란 말 그대로 알아챌이지 '닭음'이 아니며, 따라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임을 유념해야 함을 역설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10부)

049. 실참실수(實參實修)와 인문학(人文學)

어떠한가? 인문학에 관한 관심은 어떠한가? 무엇을 인문학이라고 하는가? 인문학이라 하면 대체로 인문과학의 준말로 쓸 것이다. 곧 인문학(인문과학)이라 하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과 뜻을 달리 하여 정의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인문학이라 할 때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을 아울러 쓰고 있다.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학문이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때, 사람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발전시켜온 학문에 대하여 어느 적정선까지는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다. 특히 무위법(無爲法)인 돈망(頓忘)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상당량의 인문학 바탕이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도 인문학적 독서와 사색(思索: 思惟)을 권장한다.



인문학은 퇴비와 같다.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싹이 나고 자랄 수 있지만 퇴비와 같은 밑거름을 뿌려주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농작물로 자라지 못한다. 퇴비라는 밑거름이 스며있는 땅에서는 보다 만족스러운 농작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의식의 밑바탕에 인문학의 소양

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기대를 걸 수 있다. 돈망을 파지하고 파지된 돈망을 견지함에 있어서도 상당량의 인문학 소양이 필요하다. 돈망을 파지하기 위한 사다리로 자성(自性), 공리(空理), 기초수수용(基礎受受容)이라는 세 방편만으로 거의 충분하지만 이 단상에서 이것저것 다양한 말씀들을 엮고 있는 것은 바로 인문학 소양이 조금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는데 이 용타단상의 주 목적이 돈망(頓忘)을 파지(把持)하게 하는 것, 곧 돈망(頓忘)이라는 의식(意識)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자성(自性)의 이해, 공리(空理)의 이해, 기초수의 수용(基礎受受容)이라는 세 방편만으로 돈망파지(頓忘把持)는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세 방편 이외의 것들은 돈망을 보다 섬세하게 익히기 위한 인문학(人文學)이라 여겨도 된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적지 않은 기쁨을 준다. 지식인이면 대체로 독서가 행복마중물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돈망을 위해 적당량의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나 목적성을 잊고 인문학 자체에 중독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언급했듯이 이 단상에서 다소의 인문학을 다루겠지만 독자께서 진정 무한 가치인 돈망을 파지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돈망의 체험을 바로 해 들어가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이다. 곧 거듭거듭 돈망의 3대 조건인 자성(自性) 확인, 공리(空理) 수궁, 기초수(基礎受) 수용을 히어앤나우(Here and Now)의 명상으로 실참실수(實參實修)해야 한다는 말이다. 인문학이 그림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라면 실참실수는 바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인문학이라면 직접 노래를 불러보고 들어보는 것은 실참실수이다. 돈망이라는 무위법이야말로 무위법에 대한 인문학적 이론 공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돈망을 바로 체험해 들어가는 실참실수적 관행(觀行)이 필요

하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실참실수(實參實修)적인 내용과 인문학(人文學)적인 형식이 한 사람의 의식공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살림으로 차려져야 한다.

050. 수행(修行)에 대한 관점

* 돈점불혼동(頓漸不混同)의 원리

수행(修行)이라는 말은 마음공부 촌에서 무수히 회자(膾炙)될 것이다. 여러분은 ‘수행(修行)’ 하면 그 의미가 어떻게 잡히는가? 방식에 얽매어 길고 긴 시간 좌선(坐禪)을 하는 것으로 잡히는가? 혹은 느린 걸음으로 걸으면서 의식을 어느 고정된 자리에 두는 것으로 잡히는가? 혹은 금강경독송? 주문(呪文)? 염불(念佛)? 독경(讀經)?

필자는 평생 수행자(修行者)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그러면서 세상 공부인들이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관찰해 왔다. 열에 아홉, 아니 백에 아홉아홉이 일관되게 생각하는 수행에 대한 관점은 이러하다. 우선 수행을 ‘닭음’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시간이 전제된다. 길고 긴 시간을 무언가 닭는 것이다. 이 인식이 무수히 많은 공부인들의 의식에 깊게 뿌리하고 있어서 석가모니나 조사들의 돈법(頓法)¹⁾을 아무리 손에 쥐어주려고 해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돈망(頓忘)은 돈법(頓法)이다. 누군가가 돈망을 수긍(首肯)한다면 수긍하는 순간 그의 의식은 모든 것으로부터 놓여나는 무한 자유감(無

1) 시간이 불필요한 법

限自由感)²⁾을 느낄 것이다. 이 자유감은 무한해탈감(無限解脫感)이요
니르바나이다.

여기에서 시간이 필요 없는 돈법(頓法)을 이야기함은 시간이 필요
한 점법(漸法: 닥음의 법)을 무시하거나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결
론을 말하자면, 돈법(頓法)과 점법(漸法)은 수례의 양 바퀴처럼 조화
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투철하게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즉, 먼저 돈법(頓法)을 깨달는 것과 돈법(頓法)을 깨달은 후에 돈법(頓
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점법(漸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동사섭 수련 문화 속에 돈망(頓忘)을 깨달은 수련생이 20명 정도 된
다. 돈망을 파지(把持)한 이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닥음(修)을 중시하
는 의식(意識)이 얼마나 깨달음(悟)을 해치는가를 알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깨달음을 중시하는 공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하게
충고하고 싶다. 일단 깨달음(悟)과 닥음(修)을 ‘돈오점수’와 같은 묶음
개념으로 보지 말고 개별 개념으로 보라. 수행의 길로서 닥음은 없고
오직 깨달음만 있는 듯 깨달음에만 집중하라는 것이다. [물론, 깨달음
이 확연해질 때까지이다.] 깨달음(悟) 없는 닥음(修)은 증사작반(蒸沙
作飯; 모래를 삶아 밥을 지음)이라고 하는 선각(先覺)들의 말씀을 새

2) 여기에서 중대한 맥점이 ‘감(感)’이라는 것을 귀띔하고 싶다. ‘감(感)’은 바로 근경
식(根境識)의 삼사(三事)에 상응하는 느낌(受)인데, 이는 부처님 가르침의 행간(行
間)의 법설(法說)이다. 어느 순간에 대서특필(大書特筆)로 논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해탈을 하는데 해탈에 상응하는 느낌이 없다면 어떠하겠는가? 연기의 이치가 이
해되었는데 연기 이해에 상응하는 느낌이 없다면 어떠하겠는가? <법설(法說) 이해
에 상응하는 느낌>!!! 이 시대의 불교를 살려내느냐 못 살려내느냐를 결정하는 기
로에 <법설(法說) 이해에 상응하는 느낌>이 놓여있음을 인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기기 바란다.

깊게 유념할 것은, 깨달음과 닦음을 하나로 엮어 한 수행(修行)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주제들로 여겨야 한다는 점이다. 장자의 아들이 어려서 잘못되어 거지 촌에서 거지 아이로 자라났다. 장자가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을 집으로 맞아들였다. 장자는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른다. 아들은 이 말이 열린 믿어지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장자의 아들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장자의 아들로서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다른 또 하나의 일이다.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자의 아들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자의 아들임을 인식하는 일과 역량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어떠한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자의 아들이 아니야!’ 할 수 있겠는가? <장자의 아들임>은 역량 여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없다. <장자의 아들임>과 <역량>이 독립된 두 주제이듯 <깨달음>과 <닦음>이 독립된 두 주제인 것이다. <역량>이 어떠한 <장자의 아들임>에는 변함이 없듯이 <닦음>이 어떠한 <깨달음>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 역량 여하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아들 확인>에 주목해야 하듯이, 닦음 여하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깨달음>에 주목해야 한다.

* 사유(思惟)라는 방편

돈법(頓法)이란 ‘깨달음’, ‘해오(解悟)’, ‘선오후수(先悟後修)’, 혹은 ‘돈오점수(頓悟漸修)’에서 ‘깨달음’, ‘해오(解悟)’, ‘선오(先悟)’, ‘돈오(頓悟)’에 해당한다. ‘깨달음’, ‘해오(解悟)’, ‘선오(先悟)’, ‘돈오(頓悟)’ 등이 어떤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라면 이 결과물을 나오게 하는 방

법은 무엇일까?

석가모니의 돈법(頓法) 도구는 사유(思惟: 思索)였다. 사색(思索; 思惟)을 통해 천하가 연기(緣起)의 이치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이해(理解)³⁾이다.] 선불교(禪佛敎)도 후기 선불교에서나 불립문자(不立文字) 운운의 이야기가 나올 뿐이다. 그러나 순선(純禪)시대인 초기 선불교에서는 자교오종(藉敎悟宗: 교에 의지해서 근본을 깨달음)이 방편이었다고 볼 때 진리파지의 수단이 사유(思惟)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싯다르타 사문은 사유(思惟)를 통해 연기(緣起)의 이치를 이해하고 보니 천하의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없음을 수궁하게 된다. 이로써 그 때까지 ‘나(자아)’라는 실체(實體)가 죽지 않기를 집착적으로 소망하던 마음이 사라져 자아(自我)의 영생(永生)에 급급해 하던 마음으로부터 해탈(니르바나)해버렸다. 왜냐? 천하는 온통 연기(緣起)적인 한 유기체일 뿐 어느 부분을 구획지어서 한 실체(實體), 혹은 한 자아(自我)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했기 때문이다. <천하는 온통 연기(緣起)적인 한 유기체일 뿐 어느 부분을 구획지어서 한 실체(實體), 혹은 한 자아(自我)라 할 수 없다.>라는 이해(깨달음)가 어떤 방법을 통해 나왔겠는가? 사유(思惟: 思索)가 아닌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설혹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유(思惟)를

3)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라 하면 어리둥절할 불교인이 많을 것이다. 어리둥절하는 마음이 큰 분일수록 정신을 더 차리고 보리수 나무 아래의 싯다르타 수행자를 명상적으로 사유하기 바란다. 수정주의(修正主義)나 고행(苦行)주의 등 천하의 모든 수행법을 다 섭렵해버린 싯다르타 사문(沙門)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했을 것 같은가? 이 대목은 21세기 불교를 역사를 주도하는 문화도구로 살려내느냐 살려내지 못하느냐 하는 기로(岐路)점이다. 다른 장에서 보다 고구정녕하게 다룰 주제이다.

통해 나왔다고 볼 때 가장 보편적이지 않겠는가!

사유(思惟)를 통해 연기(緣起)의 이치를 깨달으신 석존은 사유(思惟)를 통해 사성제(四聖諦), 십이연기(十二緣起), 팔정도(八正道)라는 교재를 만드셨고, 이 교재를 가지고 녹야원으로 가시어 5비구를 비롯하여 야사와 야사의 친구들 55명 등 모두 60명 제자들에게 강의를 하셨다. 60명 제자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사유(思惟)를 하여 사성제(四聖諦)와 십이연기(十二緣起)와 팔정도(八正道)를 이해하고 깨달았으며, 연기(緣起)법과 무아(無我)의 이치를 깨달아 아라한(阿羅漢) 인가(認可)를 받았다. 60명 아라한(阿羅漢) 제자를 생산한 기간은 3~6개월이었다. 부처님은 5비구가 아라한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세상에는 나를 포함해서 6명의 아라한이 있다!” 하시며 기뻐하셨고, 아라한 제자 60명이 되었을 때, 또한 부처님은 “이제 이 세상에는 나를 포함해서 61명의 아라한이 있다!” 하시며 기뻐하셨고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나아가 이 법을 전하라!”고 포교선언을 하셨다. 보리수(菩提樹)하의 부처님의 대각(大覺)과 녹야원(鹿野苑)의 60명 아라한 인가(認可)까지를 주목해보면 사유(思惟)라는 것이 거의 절대적인 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45년간 불철주야(不徹晝夜)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무수히 설법을 하셨고 설법의 대상이 되는 많은 청중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유(思惟)-사유(思惟)-사유(思惟)-사유(思惟)-사유(思惟) 하면서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것임은 자명(自明)한 일이다.

근본불교(根本佛教)의 〈연기(緣起)-무아(無我)〉 사상을 이어받은 대승불교 시대의 용수(龍樹)보살은 사유(思惟)를 통해 팔불중도(八不

中道)를 정립하셨고, 마명(馬鳴)보살은 사유(思惟)를 통해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이라는 그 시대 불교개론서를 집대성하셨고, 무착(無着)－세친(世親) 형제 보살은 사유(思惟)를 통해 유식(唯識)사상을 집대성하셨고, 달마(達磨)대사는 사유(思惟)를 통해 혈맥론(血脈論)과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을 지으셨고, 사유(思惟)를 통해 육조단경(六祖壇經)이 나오고, 사유(思惟)를 통해 돈오입도요문(頓悟入道要門)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천하의 모든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필히 스승의 가르침이 설해졌고 제자들은 스승의 설법을 들으면서 머리를 기울여 사유(思惟)를 함으로써 한 가닥 한 가닥 가르침이 정립되었다. 나아가 사유(思惟)를 통해 종단(宗團)이 운영되고, 사유(思惟)를 통해 불교대학(佛教大學)이 운영되고, 사유(思惟)를 통해 천하의 모든 경륜(經綸)이 움직인다. 팔정도(八正道)에서는 정사유(正思惟)를 두 번째 덕목(德目)으로 대서특(大書特筆)하고 있기까지 하는데, 불교인들의 의식에 이 중대한 ‘사유(思惟)’라는 개념이 증발되고 없음은 무슨 날벼락일까?

* 이해와 깨달음과 느낌

긴급동의(緊急動議)!!!! 독자들은, 모든 감각(感覺), 인지(認知) 과정에는 그에 상응(相應)하는 느낌(受)이 일어난다는 것을 평소에 인식하고 있는가? “인생에서 이 부분에 깊은 인식이 없다면 송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필자는 늘 그렇게 말하곤 한다. 교리적으로 본다면 근경식(根境識) 삼사(三事)의 화합(和合) 순간에 따르기 마련인 느낌(受)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싯다르타 사문이 자신의 육체가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때의 느낌은 어떠했을 것 같은가? 그런데 사유를 통해 연기(緣起)가 있을 뿐 일정하게 구획된 자아(自我)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의 느낌은 어떠했을까? 전자(前者)는 그

지없는 답답함이었을 것이고, 후자(後者)는 그지없이 탁 트인 느낌이
있을 것임이 수긍되는가? 앞 절의 ‘감(感)’에 대한 주석을 정독 음미하
시기를 바란다.

이해(理解)란 모르던 이치를 알게 될 때의 심리(心理) 과정을 말한
다. 깨달음도 이해의 범주에 든다. 이해의 부분 집합이 깨달음인 것이
다. 즉, 유위법(有爲法) 차원의 깨달음을 이해라 하고 무위법(無爲法)
차원의 이해를 깨달음이라 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해(理
解)라 하든, 깨달음(解悟, 先悟, 頓悟)이라 하든 그 목적어가 유위법
(有爲法)이면 이해(理解)라 표현함이 좋고, 그 목적어가 무위법(無爲
法)이면 깨달음(悟)이라 표현함이 좋을 것이다. 용타의 글 속에서는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좋겠다.

이해가 됐든 깨달음이 됐든 [모든 감각(感覺), 인지(認知) 과정에는
그에 상응(相應)하는 느낌(受)이 일어난다.]는 법칙에 따라 느낌이 수
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해가 있을 때나 깨달음이 있
을 때나 그에 상응하여 일어나는 느낌에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것이
다. 이 대목은 천하의 모든 마음 공부인들에게 드리는 충언이다. 필자
는, 특히 깨달음에 있어서, 깨달음이라는 지성(知性) 작용에 상응하는
가슴의 느낌에 유념해야 하는 일에 21세기 불교의 생사(生死)가 달려
있다 할 만큼 그 느낌을 중시한다. 3000년에 걸치는 불조의 가르침!!!
이 가르침에서 행간의 소리로 꾸준히 숨 쉬고 있는 <느낌(受)>의 메시
지를 이제는 어느 조사가 행간(行間)으로부터 행(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것은 필자의 신념이다. 고락사(苦樂捨) 삼수(三受)를 느낌의
세 범주로 본다면 <느낌>을 재해석하든지, 아니면 삼수(三受)를 재해

석함으로써 니르바나를 〈느낌(受)〉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깨달음을 강조하면서 깨달음에 상응하는 느낌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IQ를 중시하는 구시대의 수사법이였다. 그러나 구시대의 수사법이라 해도 행간(行間)을 잘 들여다보면 행간에서 엄연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가슴의 소리인 느낌의 향기를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바야흐로 이 시대는 EQ를 아울러 중시하는 21세기의 수사법이 나와야 한다. 곧 행간(行間)의 말씀을 행(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돈망(頓忘)만을 두고 보더라도, 지금여기 깨어 있는 의식을 의식할 때 이에 상응하는 그윽한 평화감을 읽어낼 수 있고, 아공법공(我空法空)을 수궁할 때 무한이 열려버린 무한해탈감(無限解脫感)을 읽어낼 수 있다. 나아가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고 첫 번째 화살을 그대로 수용해버릴 때 현전하는 여여감(如如感)을 읽을 수 있어서 돈망(頓忘)의 의식을 의식하는 심리과정에 상응하는 무한지복감(無限至福感)이라는 니르바나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천하의 무수한 법리들을 우리의 의식에 영접할 때 그것에 상응하는 느낌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진정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모든 감각-인지 과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느낌이 수반된다.]는 경귀를 잊지 않아야 한다. 이해나 깨달음은 대뇌의 몫이지만 이해나 깨달음에 상응하는 느낌은 가슴의 몫이다. 이해나 깨달음에 머물러버리면 우리의 에너지는 뇌에 집중되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해나 깨달음에 상응하는 느낌에 유념하면 우리의 머리에 있는 에너지는 몸으로 내려와 깊은 휴식을 취하게 되는 법이다.

다음 호에 이어질 느낌 단상에서 보다 차분하게 논의될 것이지만

21세기 교학(敎學)과 신학(神學)에 있어서는 모든 법리들을 느낌이라는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재편집하여야 할 것이다.

051. 삼사화합(三事和合)과 느낌(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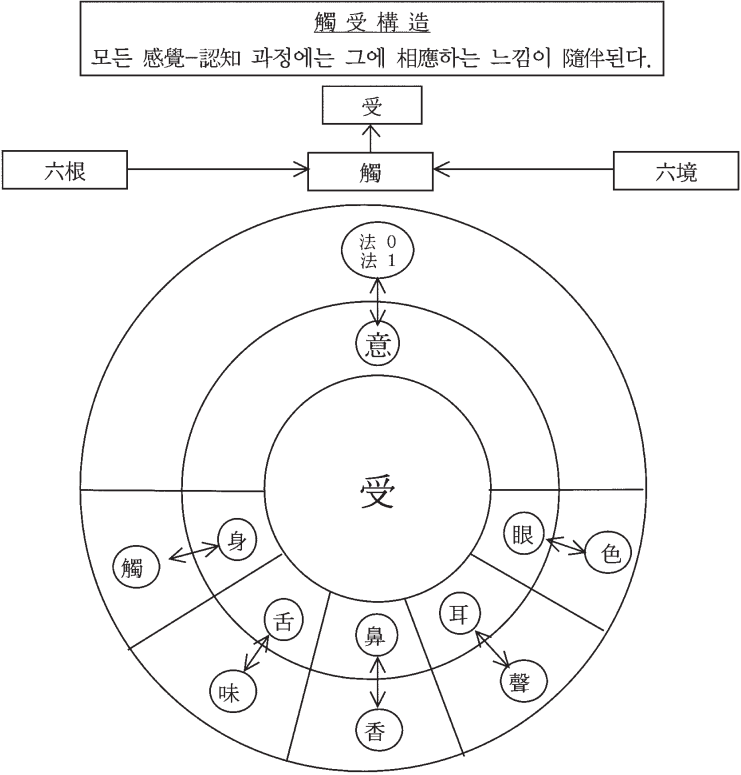
* 촉수(觸受) 구조

도표가 전하고 있는 뜻을 정리해보자. 눈으로 무언가를 봄으로써, 귀로 어떤 소리를 들음으로써, 코로 어떤 냄새를 맡음으로써, 혀로 어떤 맛을 맛봄으로써, 피부로 무언가를 감촉함으로써, 마음으로 무언가를 인식함으로써 고통(苦受:-)를 느끼거나, 낙수(樂受:+)를 느끼거나, 사수(捨受:#)를 느끼거나, 나아가 사수(捨受)의 극점에 있는 각수(覺受:#)를 느끼거나 할 것이다. 인생이 결국 행복지향이라면, 가능한 -보다는 +나 #를 느끼고자 할 것이요, 할 수만 있다면 중에서도 각수(覺受)인 #를 느끼고자 할 것이다. 돈망은 자성(自性)으로 보나, 공리로 보나, 기초수 수용으로 보나 모두 각수(覺受)이니, 돈망(頓忘)은 가장 이상적인 느낌(受)이 될 것이다.

* 사수(捨受)와 각수(覺受)

사수(捨受)는 가치중립(價値中立)적인 상황에서 별 느낌이 없는 느낌, 텅텅 혹은 답답한 느낌이라면, 각수(覺受)는 깨달음(意識이 法 0을 觸하는 심리과정)이 조건이 되어서 발생하는 느낌이다. 사수(捨受)와 각수(覺受)는 별개의 의식 영역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각수(覺受)를 사수(捨受)의 연장선상에 두는 정리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안다. 왜냐하면 각수(覺受)도 결국 느낌일 터, 각수(覺受)를 사수(捨受)와 별도의 영역에 둔다면 느낌(受)이 삼수(三受)로 정리되는 상황에서

각수(覺受)라는 느낌을 삼수(三受)와 구별하여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복잡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지옥의 느낌으로부터 니르바나의 느낌까지를 한 생명체 속에서 일원화된 한 흐름으로 보지 못한다면 각수(覺受)인 니르바나를 생명 현상을 떠난 신비영역으로 몰아내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느낌 곧 수(受)는 고락사(苦樂捨) 세 단계로 보고 각수(覺受)는 사수의 극점에 있는, 깨달음에 상응하여 일어나는 지고(至高)한 단계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삼사화합(三事和合)

촉(감각)은 三事(根境識)의 和合 과정이다. 십이연기(十二緣起)의 [육입-촉-수] 언저리를 떠올리면 된다.

* 삼사화합(三事和合)과 수(受)

느낌(受)은 근경식(根境識)의 삼사(三事)가 화합(和合)함에 상응하면서 일어나는 심리과정이다. 육입(六入)이라는 육근(六根)이 육경(六境)과 마주치는 것이 촉(觸)이요, 촉(觸: 감각)하자마자 수(受: 느낌)가 바로 따라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다.

* 삼사화합(三事和合)과 우주관

근경식(根境識) 삼사(三事)에는 육근(六根)과 육경(六境)과 육식(六識)이 있다. [六根 = 眼根, 耳根, 鼻根, 舌根, 身根, 意根. 六境 = 色境, 聲境, 香境, 味境, 觸境, 法境. 六識 = 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 이 도식은 세계관 내지 우주관을 드러낸다고 했다. 세계를, 우주를 보라. 바로 육식(六識)이라는 식(識) 주체기능이 육근(六根)을 통해 육경(六境)을 마주치는 심리과정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삼수(三受) 정의

受(느낌)는 三受(苦受-樂受-捨受)로 나뉘어 정리된다. 고수(苦受)는 괴로움의 느낌이요, 낙수(樂受)는 즐거움의 느낌이며, 사수(捨受)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 수(受: 느낌)와 인생

느낌(受) 좋자는 것이 인생이라면 느낌(受)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해

서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는 보다 바람직한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만나야 할 것이다.

* 무위(無爲)의 느낌

최고 지고(至高)한 느낌은 식(識)이 의근(意根)을 통하여 무위법(無爲法: 法0)을 만남으로써 얻어진다. 자성(自性)이 무위법이요, 공(空)이 무위법이요, 여여(如如)한 수용(受容)이 무위법이다. 돈망(頓忘)은 자성(自性)과 공(空)과 기초수수용(基礎受受容)이 일화일미(一和一味)로 느껴지는 의식이다. 돈망(頓忘)은 무위(無爲)의 결정판이요, 돈망의 의식에 이르러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최극(最極)의 지고지순(至高至純)한 느낌을 경험할 것이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용타 스님** | 1964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교단에 섰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0안거를 성만했다. 미국 삼보사 주지, 성륜문화재단 이사,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저서로는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 『10분 해탈』이 있다.

(재) 행복 마을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저자 용타 | 출판사 대원사 | 정가 12000원

용타 스님의 『마음 알기 · 다루기 · 나누기』. 마음 닦는 일에 대한 불교 관점의 입문서이자 지침서다. 불교월간지 『대중불교』 등에 실어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행복과 행복의 조건, 생활 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의로의 산책, 명상 잡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0분 해탈 - 용타 스님의 생활 수행 이야기

저자 용타 | 출판사 불광 | 정가 12000원

생활도 수행이다!

용타 스님의 생활 수행 이야기, 『10분 해탈』. 불교의 근본적 가르침뿐 아니라, 선불교를 바탕으로 현대 심리학과 상담학을 끌어들이며 ‘동사섭(同事攝)’이라는 집단수행 프로그램을 만든 저자의, 『마음 알기 · 다루기 · 나누기』(대원사, 1997년)에 이은 두 번째 수행 지침서다.

이 책은 불교 월간지 『불광』에 3년간 연재해온 〈생활 수행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매일 1편씩 10분간 읽으면서 해탈을 이루어 궁극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동사섭 수련프로그램 안내

동사섭(同事攝)이란, 불교의 사섭법(四攝法: 布施攝 · 愛語攝 · 利行攝 · 同事攝) 중의 한 개념이다. 사섭법이란 보살이 중생을 향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베풀고(보시摄), 경우에 따라서는 자애어린 말로 더불고(애어摄), 또는 이로운 일로 도와주고(이행摄), 나아가 그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동사섭) 삶의 태도를 말한다. 본 동사섭수련회에서는, 동사섭의 개념을 사섭법 중의 동사섭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되 보시, 애어, 이행을 다 아우르며, 세상에 존재하는 유정 무정의 개개가 낱알이 우주의 주인공이 되 낱알이 서로 평등하게 어우러져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만 존립할 수 있으니 우주 전체가 한 생명체일 수밖에 없다는 일체(一體) 사상을 뜻매김하여 쓰고 있다.

동사섭 수련프로그램은 용타스님이 개발한 마음수련 프로그램이다. 칼 로저스의 엔카운터를 씨앗으로 하여 1980년부터 수련하여 왔다. 현재는 〈삶의 5대 원리-정체(正體) · 대원(大願) · 수심(修心) · 화합(和合) · 작선(作善)의 원리〉를 학습 주제로 하여, 의식의 전개 과정을 일상의 삶 속에서 지인(至人)의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이론과 실습의 체계로 수련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과정(5박6일), **중급과정**(3박4일), **고급과정**(3박4일)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평소에는 홀수 달, 셋째 주 월요일에 개설되어 있다.

홈페이지 <http://www.dongsasub.org>

연락처 055-962-1070 / 이메일 office@dongsasub.org